

모레노호 태극전사 공개... 새 얼굴 누구 귀일중 남중 단체 우승·여중 단체 2위

정승원·이승우 승선 관심... '깜짝 카드' 촉각
'캡틴' 손흥민 활용 관심... 모레노 첫 시험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발탁된 로베르토 모레노(스페인) 감독이 오는 9~10월 A매치 4연전에 나설 태극전사를 14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얼굴의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A매치 기간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과 겹치는 터라 모레노 감독은 이민성호에 발탁된 대표팀 자원을 대체할 '깜짝 카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모레노 감독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14일 천안코리아풋볼파크에서 9~10월 A매치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축구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정된 모레노 감독은 면접과정에서부터 군 팀인 김천 상무의 특수성까지 파악할 정도로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줬다.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9~10월 A매치에 나설 대표팀 후보군을 축구협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축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레노 감독이 K리그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주 전체 코칭스태프를 대상으로 K리그1, 2 경기 전체를 볼 수

있는 플랫폼 계정을 새로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역대 대표팀 감독의 공통적인 고민은 '캡틴' 손흥민(LAFC) 활용 법이었다.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공격수로 추앙받는 손흥민의 최적 포지션과 전술적 활용은 대표팀 사령탑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됐다.

손흥민은 A매치 147경기로 역대 한국 선수 최다 출전 1위를 내달리고 있고, 그동안 56골을 넣어 역대 A매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차범근(58골)에 2골 차로 다가섰다.

다만 손흥민은 올해 태극마크를 달고 뛴 7경기(북중미 월드컵 4경기 포함·3승 4패)에서 2골(5월 트리니다드토바고전 2골)만 기록한 게 아쉽다.

모레노 감독도 경기 결과가 중요한 만큼 기존 베스트 11의 틀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24일 에콰도르전(수원월드컵경기장), 28일 우루과이전(서울월드컵경기장), 10월 2일 베네수엘라전(울산문수축구장), 10월 6일 우즈베키스탄전(용인 미르스타디움)까지 4경기 모두 국내에서 치러지는 만큼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분석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받는 모레노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이 어떻게 펼쳐질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대회
이시하 여고부 종합 4위

귀일중 근대5종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전국무대에서 맹활약하며 제주 근대5종의 저력을 과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근대5종연맹은 귀일중(교장 남효봉)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남중부 근대2종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 여중부 근대2종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김재현, 김민균, 안도윤, 남길우가 출전한 남중부 단체전에서 귀일중은 2180점을 합작하며 경기NSF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재현은 개인전에서도 수영 309점(2위), 육상 335점(6위)을 획득해 총점 644점으로 종합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귀일중은 여중부 단체전에서도 이가영, 박효연, 이예상이 1551점을 합작해 전남제중에 이어 준우



귀일중 근대2종 선수단. 왼쪽부터 남길우 김민균 안도윤 김재현 이가영 이예상 박효연. 제주근대5종연맹 제공

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는 제107회 제주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실전 경기력 점검에 나선 제주사대부고 선수들도 출전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여고부 이시하는 펜싱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종목별 경쟁력을 보여줬으며 종합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남고부에서는 신현규가 11위, 박진우가 12위를 기록했는데 단체전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대5종연맹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확인된 기량과 경기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선수단의 메달 획득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 스페인 출신 모레노. 연합뉴스

K리그1 제주 유승재, 미국 LAFC 2군으로 임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SK의 신예 측면 공격수 유승재(18)가 손흥민이 속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의 2군 팀으로 임대됐다.

제주와 LAFC2 구단은 9일 유승재의 임대를 발표했다. LAFC2가 밝힌 유승재의 임대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다.

용인 태성고 출신 유승재는 올해 제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한 신인으로, 1대1 능력과 득점 지역에서 기회 창출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달 25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25라운드에 교체 투입돼 K리그1 데뷔전을 치렀다.

유승재의 임대는 지난해 제주가 바이에른 뮌헨(독일), LAFC와 체결한 파트너십의 결실이다. 뮌헨과 LAFC는 2023년 R&G라는 글로벌 유소년 육성 플랫폼을 합작 설립했고, 제주는 아시아 최초로 파트너 클럽으로 합류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엔 제주 골키퍼 허재원이 뮌헨으로 임대된 바 있다.



제주 유승재. 제주시 SK 제공

제주 구단은 유승재가 지난달 R&G 플랫폼 소속 유소년 팀이 참가한 대회 'R&G 글로벌 트로피'에서 활약하며 LAFC2의 영입 제안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도쿄 그랜드슬램 여자 78kg 이상급 결승에서 맞붙은 이현지와 김하윤. IJF 홈페이지 제공

유도 이현지·김하윤 나고야 AG 우승 합심

세계 정상을 다투는 라이벌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조력자로 나섰다. 유도 여자 78kg 이상급 국가대표 김하윤(안산시청)과 이현지(용인대) 이야기다.

김하윤과 이현지는 9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

시안게임 유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개인전 및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두 선수는 여자 78kg 이상급 최정상 자리를 두고 겨루는 경쟁자다. 김하윤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4 파리 올림픽 동메달, 2025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여자 유도 최강랭킹 간판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최근 '셋발' 이현지(용인대)가 판도를 바꿨다.

남녕고 재학 시절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최고 유망주로 떠오른 이현지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김하윤의 최대 적수로 성장했다.

두 선수는 주요 대회 메달 기록마다 만났다. 작년 6월에는 김하윤이 우승했고, 작년 12월에선 이현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이현지가 김하윤을 꺾으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현지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 김하윤은 혼성 단체전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제주CBS창립25주년기념 특별음악회

Jazz in Jeju

2026

2026.9.15(화) 오후 7:30
제주성안교회

사전예약
9월1일(화) 오전10시부터 제주CBS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공연문의: 064.748.7400

Young Joo Song Quartette

송영주 콰르텟

피아노 송영주 드럼 임주찬 베이스 신동하 색소폰 송하철

La Ventana

라벤타나

Feat. KoN & 유사랑

아코디언 정태호 피아노 박영기 베이스 최인환 드럼 최요섭 바이올린 KoN 보컬 유사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kakao

롯데관광개발 LOTTE TOUR

이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제주농협

FM 제주 93.3 서귀포 90.9 SkyLife 182 Olleh TV 238 SK Btv 290 LGU+ 270 | 케이블 TV 371 | www.jjcbcs.co.kr | jeju.nocutnews.co.kr

제주 CBS